

조계종 민추본은 10월 30일 강원도 양구 두타연과 화천 평화의종 공원 일대에서 '남북화해기원 평화명상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원에서 명상하는 사부대중의 모습.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타종하며 평화 통일을 염원했다.



이날 행사는 '평화'를 화두로 명상하며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였다.



탐방객들이 두타연의 보덕굴을 바라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북 분단 현장, '평화 명상'으로 장엄하다

민추본 '남북화해기원 평화명상걷기' 현장을 가다

10월 30일, 강원 양구 두타연 등서
민추본 · 동국대 북한학과 등 동참해
남북접경지서 '평화 · 협력' 화두 명상
덕유 스님 "평화는 내 마음에서 시작"

'세계평화의 종' 타종…통일 미래 염원
준한 스님 "마음 평화는 곧 미래 평화"
이창희 북한학 교수, 남북관계 강의도

강원도 양구=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대북·대남 전단 살포와 확성기 갈등 등으로 남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60여 명의 사부대중이 남북접경지에서 '평화'를 화두로 명상에 잠겼다. 남북 분단의 현장에서 한반도의 적대 상황을 이해하고 내 마음 속 갈등을 해소해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자는 취지에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는 10월 30일 강원도 양구군 두타연과 화천 세계 평화의종 공원 일대에서 '남북화해기원 평화명상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남북접경지 탐방과 함께 한 명상 프로그램들로 특별함을 더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와 명상을 접목시켜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평화 통일'을 시도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을 비롯해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과 신도들, 동국대 북한학과(학과장 황진태 교수)와 사회과학대 불교동아리 '템플애플' 학생 등 총 60여 명이 함께했다.

첫 목적지는 대한민국 최전방인 두타연으로 장안사와 32km 거리를 둔 금강산 가는 길목이다. 2004년까지 출입이 통제돼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생태보존지이기도 하다. 이른 새벽에 출발해 두타연에 도착한 탐방객들은 입구에서부터 "천예의 자연환경을 어서 빨리 보고 싶다" "금강산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오래 걸어도 괜찮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두타연 금강산 가는 길 걷기 명상에 앞서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남북 갈등이 첨예해지는 요즘 최소한의 노력을 해보고자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면서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진정한 평화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므로 남북접경지에서 평화와 협력에 대해 되새겨보고, 그것이 통일 실현으로 이어져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기원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모두 명상"이라며 두타연 금강산 가는 길 걷기 명상을 지도했다. 탐방객들은 묵상하며 20m 높이에 이르는 두타연 기암괴석과 절벽 아래에 자리한 보덕굴을 지났다. 이들은 두타정 계곡 앞에서 평화의 염원이 북쪽의 동포에게 닿길 바라며 "평화 통일"을 외치기도 했다.

걷기 명상을 마친 김규민(20세,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은 "오늘 걷기 명상에서 '남북 관계'를 화두로 깊이 있게 생각해보았다"며 "우리가 목도한 남북 갈등 상황에서 더욱 많은 젊은 세대들이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해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탐방객들은 두타연에 이어 세계 평화의종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입구에 자리한 '평화의 종'은 전 세계 30여 개국 분쟁지역에서 보내온 총알과 포탄의 탄피를 모아 만든 종이다. 높이 4.7m, 무게 37.5m에 달하는 이 종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미래에 통일될 희망을 품고 있다. 탐방객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타종하고 종이 울리는 진동을 가까이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민추본 회원 신유식 씨는 타종을 마치고 1분여 시간 동안 종에 손과 이마를 댄 채 기도했다. 신 씨는 "어릴 적에 자유롭게 금강산 출입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남북 갈등 상황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면서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종의 울림이 멀리멀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평화의 종소리를 들은 뒤 공원에서는 준한 스님과 함께하는 명상 시간이 이어졌다. 무장한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 지나갈 때, 탐방객들은 좌선한 채 각자가 세운 평화의 화두에 집중했다. 앉아서 10분, 누워서 10분, 명상을 실참한 탐방객들은 저마다 마음이 고요해진 소감을 전했다.

동국대 교환학생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킬리언 풀럼(Killian Fullam, 20세, 영국 사우스햄튼대) 학생은 "걷기 명상을 할 때 곳곳의 지뢰 주의 안내판이 무섭기도 했지만, 남북의 현 상황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좌선과 와선을 하며 내가 가진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고 한반도에 평화가 되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했다.

행사의 명상 지도자였던 준한 스님은 개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 통일 미래가 이뤄지길 발원했다. 스님은 "남북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사라진 것 같은 요즘, 민추본과 함께 미래 세대 불자를 양성하는 동국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정말 뜻 깊었다"면서 "평화 통일의 뜻을 가진 여러분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미래의 한반도는 더 큰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는 행사를 마무리하며 남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접경지 강화도의 주민이 나와 대남 방송 피해를 호소하며 남북 갈등 해결을 촉구한 일을 언급하며 남북 갈등의 피해는 국민이 가장 먼저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남북은 서로의 위치와 외교, 이해 관계 등을 고려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과 같이 지속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외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추본은 남북·북중접경지역 평화기원순례,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등을 개최하며 불자와 일반 시민들의 통일 의식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뉴스레터 'e-통일정토'를 제공해 민추본과 북한 불교계에 관한 소식을 전한다.

Bongnyeogwan Research Center for Buddhism and Culture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2024년 학술세미나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 IV

'역사는 시작이 있고 흔적을 남긴다'

본 연구원에서는 근대 제주불교 역사 연구와 함께 왜곡된 근대 제주불교 역사를 사실의 역사로 정립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바른 역사가 정립될 때 비로소 참신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16일 (토) 13시 30분 ~ 17시
제주 테크노파크(제주 벤처마루) 10층, 1001호 세미나실 (제주시 중앙로 217)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 연락처 010-9185-1004



건강선물로 좋습니다
『산사품』 명품 토종꿀

『산사품』 토종꿀은 충북 괴산의 낙영산과 보개산의 사찰주변 청정산중에서 채밀.
『산사품』 토종꿀은 1년에 1회 채밀합니다.
『산사품』은 『산사 품은 명품꿀』이라는 뜻으로 『산사품 한봉원』의 브랜드입니다.

산사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사찰불사 및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사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산사품 드시고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전국무료배송
- 2024년 8월 26일부터 배송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 받습니다.
-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